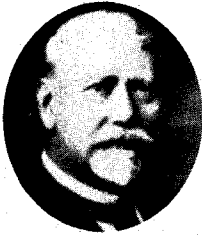


썸 운동의 유래와 현황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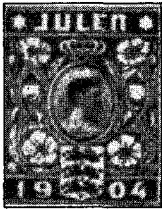


아이날 홀벨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썸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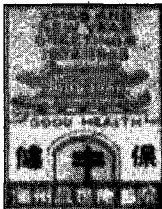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썸 운동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결핵은 전 구라파에 널리 만연되었으며 덴마크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날 홀벨」(Einar Holboell)이란 친성이 착한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 직원은 그가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던 중 연말에 쌓이는 크리스마스 우편물을 정리하면서 카드와 소포에 동전 한잎짜리 썸을 붙인다면 판매된 대금으로 결핵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금을 모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1904년 12월 10일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썸을 발행하였으며, 국왕 크리스찬 9세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그의 소박한 착상은 처음부터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썸 (1904년)

크리스마스 썸이 붙은 우편물이 바다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자 인정받고 활동적인 「에밀리 비셀」(Emily Bissell)양은 자신이 도안한 미국 최초의 썸을 1907년 웨밍톤우체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썸 운동은 세계 여러나라로 전파되어 결핵을 없애려는 인류공동의 싸움에서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썸 (1932년)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썸 운동

한국의 크리스마스 썸은 일제치하인 1932년 황해도 해주 구세결핵요양원장으로 있던 캐나다의 선교의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최초의 썸은 거북선이 도안되었으나 반일사상을 고취한다고 허가하지 않아 남대문으로 바뀌었다.

그때의 크리스마스 썸 모금에는 많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홀 박사는 회상하고 있다. 즉 어떤 가난하고 무지한 여인



셔우드 홀



은 썸이 결핵과 싸우는데 사용된다는 광고를 보고 썸을 사서 그녀의 가슴에 붙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다고 썸 산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적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썸이라고 불리는 신통한 결핵약이 있다는데 값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으니 팔라고 애원하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홀 박사는 그가 추방되던 1940년까지 9회 썸을 발행했다.

해방후에는 1949년과 1952년에 문창모 박사와 한국복십자회가 썸을 발행하였으나 썸에 대한 인식결여로 모금이 어려웠으며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썸을 발행하였다. 그후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매년 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88년도와 '89년도의 우리나라 썸은 세계 크리스마스 썸 콘테스트에서 연속 2회 1위로 입상한 바 있다.

홀 박사는 1991년 캐나다에서 97세로 별세했으며 그의 유해는 유언에 따라 그의 부모가 잠들어 있는 마포 양화진의 외국인묘지에 묻혔다.

한장의 크리스마스 썸은 결핵환자를 위한 작은 정성입니다. 우표앞에 썸 한장은 받는이로부터 마음과 마음에 사랑과 존경의 특별한 의미가 전해지는 크리스마스 썸입니다.

크리스마스 썸 성금은 어디에다 쓰이나?

작은 정성으로 모아진 썸 성금은 우리나라의 결핵을 없애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 1) 결핵계몽·결핵지식 보급과 참여촉구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 2) 엑스선검진: 20개 이동엑스선 검진반으로 연간 143만명 검진.
- 3) 결핵균검사: 균양성환자 발견과 보건소 등록환자 추구관리 객담검사 연간 31만건.
- 4) 환자진료: 9개 부설의원에서 연간 19만명 진료.
- 5) BCG생산·매년 결핵예방약 150만명분 생산 무상공급.
- 6) 조사연구 및 훈련: 결핵관리정책수립연구와 자료제공 및 결핵요원의 훈련과 국제교류. †